

「朝鮮文法」문장론의 原詞法과 隱覺 및 畧省句語*

박종갑**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原詞法
- III. 隱覺
- IV. 畧省句語
- V. 마무리

【국문초록】

국어 문법서의 몇몇 대표작들-김규식의 「朝鮮文法」(1912),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 등에는 문장의 기저구조와 관련돼 보이는 기술이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조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김규식의 「朝鮮文法」의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朝鮮文法」은 ‘原詞法’, ‘隱覺’, ‘畧省句語’, ‘畧省’, ‘拔去’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장론에서의 原詞法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의미해석적 기저구조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隱覺을 생략의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은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크게 문장의 구성성분이 은각된 경우와 문장이 은각된 경우로 대별되는데, 隱覺은, 생략되기 전의 문장구조인 原詞法에서,

* 필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편의 연속적인 논문을 기획하였다. 하나는 김규식의 「朝鮮文法」(1912)에 들어있는 이른바 기저구조 관련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의 그것과 대조함으로써, 두 문법서의 기저구조 관련 기술의 본질을 구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본고에서, 두 번째 작업은 후고를 통하여 이뤄진다.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담화상황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담화의 한 부분인 문장이 생략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 은각되기 전의 구조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은각은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를 연결하는 통사적 수단인 변형과 일맥상 통하는 점이 있다. 『朝鮮文法』에서는 하나의 주어와 몇 개의 서술어와 연결되거나 몇 개의 주어가 하나의 서술어와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이를 畧省句[畧省句語]라 하였다. 주어진 문맥을 이용하여 의미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설정한 중문 형식의 구조에서, 중복된 부분을 생략한 구조가 畧省한 連結句語인데, 이러한 경우의 생략을 拔去라하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畧省이란 말을 쓰면서도 隱覺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拔去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각으로 기술한 부분과 畧省句語에서의 기술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 김규식, 기저구조, 변형, 문맥, 담화상황, 원사법, 은각, 약생구어, 발거.

I. 들어가기

우리 국어 문법서의 몇몇 대표작들-김규식의 『朝鮮文法』(1912)¹⁾,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최현배의 『우리말본』

1) 김규식이 저술한 것으로 밝혀진 문법서들과 그 출판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모두 필자 표시가 없고 ①과 ③은 출판 연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세 문법서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비교, 저자와 출판 연도 등은 김민수(1977)에 의해 이뤄지고 밝혀진 것이다. 본고에서 김규식의 『朝鮮文法』(1912)을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보다 앞에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그것의 초판본인 『大韓文法』이 1908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大韓文法』에 비해 『朝鮮文法』(1912)에서 고치거나 보탠 내용 중 가장 뚜렷한 부분이 ‘補缺詞’에 대한 것이고, ‘大韓’을 ‘朝鮮’으로 고친 것 등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①『大韓文法』(一蓑本) 1908년 9월 油印: 初版

②『朝鮮文法』(河東鎬教授本) 1912년 9월 油印: 修正再版

③『朝鮮文法』(六堂本) 1913년 9월 油印: 3版

(1937) 등에는 현대 문법론에서 설정하는 문장의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있다. 『朝鮮文法』(1912)의 ‘原詞法’, ‘隱覺’, ‘畧省句語’, 『國語文法』(1910)의 ‘숨은뜻’과 ‘속뜻’, 『조선말본』(1916)의 ‘숨은말’, 『우리말본』(1937)의 ‘속뜻’과 ‘줄인표’ 등이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 (1) (a) 아모가 온다
 ⇒ (b) 온다.
- (2) (a)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저 사람이 가오
 ⇒ (b)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
- (3) (a) 너는 글을 배기가 그렇게 어렵으나?
 ⇒ (b) 글 배기가 그렇게 어렵으나?
- (4) (a) 사랑이 어떻더냐, 사랑이 길더냐, 사랑이 짜르더냐?
 ⇒ (b) 사랑이 어떻더냐, 길더냐, 짜르더냐?

위 예들은 차례대로 『朝鮮文法』의 ‘隱覺’, 『國語文法』의 ‘숨은뜻’, 『조선말본』의 ‘숨은말’, 『우리말본』의 ‘속뜻’과 관련된 자료이다. (1)의 경우를 예로 들면, 『朝鮮文法』에서는 (b)의 ‘온다’는 (a)의 ‘아모가 온다’와 같은 구조에서 주어 ‘아모가’가 생략되어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b)에는 주어 ‘아모가’가 隱覺되어 있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대 문법론의 기저구조와 통하는 것이라고 하여, 몇몇 선행 연구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필자도 몇몇 논문에서 이에 대해 다룬 바가 있지만, 좀더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절감해 왔다. 먼저 각 문법서별로 관련 내용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그것들을 서로 견주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져 봄으로써, 이들 용어들의 문법적 본질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김규식의 『朝鮮文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김규식의 『朝鮮文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또 소략하게 다뤄져 왔으며, 그나마 후속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주시경의 『國語文法』에 집중되어 왔다.²⁾ 『國語文法』의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내용을 일관되게 분석한 특징이 있지만, 『朝鮮文法』은 ‘原詞法’, ‘隱覺’, ‘畧省句語’, ‘畧省’³⁾, ‘拔去’ 등 여러 가지 용어와 함께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러 용어들의 문법적 본질,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말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분석 및 기술 수준으로 보면, 『國語文法』이 월등하지만, 이 주제에 한정하여 말하면, 『朝鮮文法』이 『國語文法』에 못지않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朝鮮文法』은 그 초판이 『大韓文法』(1908)이고, 두 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⁴⁾ 『朝鮮文法』은 시기적인 면에서도 『國語文法』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朝鮮文法』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법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⁵⁾

2) 김규식의 『朝鮮文法』의 관련 부분을 다룬 논저는 김민수(1977), 권재선(1988), 박종갑(1993) 등이 있다. 주시경의 『國語文法』의 관련 부분을 다룬 논저는 김민수(1977), 고영근(1983), 권재선(1988), 전수태(1989), 박종갑(1995), 김명호(1996), 최규수(2005), 최낙복(2013) 등등 매우 많다.

3) 『朝鮮文法』에서는 ‘약생’에서의 ‘약’을 ‘畧,略’ 두 가지 형태의 글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畧으로 통일하였다.

4) 본고에서는 한 문법서에 여러 판본이 있을 경우 최종판이 그것의 대표가 된다고 보고, 『大韓文法』(1908) 대신 『朝鮮文法』(1912)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5) 필자는 박종갑(1993)에서 『朝鮮文法』의 隱覺 및 畧省句語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상당한 오류가 있으며,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그냥 넘어간 부분도 많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작성한다는 자세로 이뤄진 것이다.

II. 原詞法

『朝鮮文法』에서는 原詞法이란 용어가 몇 번 등장한다. 이 용어는 분명한 개념 규정이 없어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질적인 언어 현상을 함께 지시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경우

『朝鮮文法』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隱覺’이란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隱覺이 이뤄지기 전의 상태를 原詞法이라 한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것의 실체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⁶⁾

<인용문①>

或時는 但 一箇 動詞로만 一 句語⁷⁾를 完成할 수 잇스나 如斯호 境遇에는 其 題目語가 隱覺됨이니라 假令 「가거라」 호면 此 句語의 “原詞法”은 「너 가거라」 호는 命令句語니 題目語 「너」가 隱覺되었느니라 且 「온다」 “原詞法” 「아모가(隱覺) 온다」(p.13).

위 내용은 간혹 동사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어(제목어)⁸⁾가 隱覺되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隱覺되

6) 원문을 인용할 때는 필자가 임의로 띄어쓰기하여 제시한다. 큰 따옴표도 필자가 임의로 첨가한 것이다. 그리고 문법서의 원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표기상의 실수(예, 여는 괄호는 있는데 닫는 괄호가 없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옮긴다.

7) 句語는 ‘문장’에 상응하는 용어이다.

기 전의 상태를 原詞法이라 하고 原詞法의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隱覺되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식의 설명이다. 여기서 隱覺이라는 용어와 原詞法이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한다.

隱覺은 ‘생략의 개념으로 보인다. 隱覺되어 있다는 것은 생략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인데, 『朝鮮文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隱覺을 ‘畧省’의 뜻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생략(省略)과 같은 뜻이다.

<인용문②>

此等 詞字는 己爲 發表된 思想에 對하야 言者가 可否間 說明하는 者이니 關係詞라 稱호지오 其 作用에 對하야는 動詞나 一 句語의 全體가 “隱覺”된 다 云호지니라. 假令 「진지 잡수셨소」 호는디 「네」라 호던지 「아니오」라 디답 호면 其實은 「밥 먹었소」 호던지 「아니 먹었소」로 대답호 바를 “畧省”하야 關係詞 「네」나 「아니오」로 簡單히 說明호이라(p.27).

위 인용문은 ‘관계사’가 쓰일 때는 동사나 문장 전체가 “隱覺”될 수 있다고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관계사 ‘네’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그것은 “밥 먹었습니다.” 또는 “밥 안 먹었습니다.”와 같은 문장으로 답할 것을 ‘네’ 또는 ‘아니오’로 간단히 “생략”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原詞法은 隱覺된 성분이 모두 실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隱覺이 이뤄지기 전의 상태가 原詞法인 것이다. 앞의 <인용문①>에 들어 있는 예를 정리하여 다시 제시한다.

(5) (a) 너 가거라 ⇒ (f) 가거라

8) 『朝鮮文法』에서는 주어를 ‘제목어’라 하고 서술어를 ‘설명어’라 하였다.

(b) 아모가 온다 ⇒ (♣) 온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주어가 隱覺되어 있고 동사만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隱覺이 생략의 개념이고, 생략되기 전의 상태가 原詞法이라면, 이 경우의 原詞法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 김규식의 『朝鮮文法』에서 이 생략의 개념은 참 중요하다. 이 절에서 다루는 원사법을 의미해석적 개념이 아닌 통사구조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핵심적 근거도 이 생략의 개념이다.¹⁰⁾ 만일, 어떤 구조 US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구성성분이 생략되어 SS라는 구조¹¹⁾가 된다면, US는 현대 문법론의 기저구조에, SS는 표면구조에 상응하는 것이 될 것인데, 여기서의 원사법은 바로 이 US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Ⅱ.1)에서 다루는 원사법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朝鮮文法』에서는 질문과 응답의 과정에서 응답 담화의 일부인 문장이 생략되는 경우도 隱覺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바로 앞의 <인용문②>에 들어 있는 담화의 예를 제시한다.

(6) [Q] 진지 잡수셨소?

[A](a) 네. (밥 먹었소).

9) 권재선(1988:655)에서도 『朝鮮文法』의 原詞法을 기저형이라 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10) 이러한 생략의 개념은 주시경의 『國語文法』에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조는 후고에서 다룬다.

11) 『朝鮮文法』에는 SS를 두루 가리키는 용어는 따로 없다. 그런데 일부 문장구조인 경우 ‘畧省 句 連結 句語(畧省句語)’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약생(생략)’이 이뤄진 후의 문장구조를 일컫는 것이므로, SS를 가리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Ⅳ장에서 다룬다.

(b) 아니오. (아니 먹었소).

『朝鮮文法』에서는, “진지 잡수셨소?”라는 질문에 “네.”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네. 밥 먹었소.” 또는 “아니오. 아니 먹었소.”와 같이 할 것을 간단히 말하기 위해 문장 부분을 생략한 것이고, 따라서 “밥 먹었소.” 또는 “아니 먹었소”가 은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p.27). 은각되기 전의 구조가 원사법이므로, 이 경우는 응답 담화로서의 원사법에서 문장이 생략된 예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생략된 부분이 선행 발화에 의존하여 복원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예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하나의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담화의 단위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가 하나밖에 없고, 또, 예를 들어, “네. 밥 먹었소”와 같은 형식을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여기서의 기저구조도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2. 의미해석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경우

그런데 原詞法이란 용어가 문장의 통사구조적 기저구조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논리적 해석을 가리키는 데 쓰인 경우도 있다. 다른 품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pp.9-10).

<인용문③>

副詞로 名詞를 代用함 『其人の 來日이 無限하다』 하면 副詞 『來日』을 名詞 資格으로 用하야 此 句語에 題目語가 된 거시라 『엇더케를 알아 무엇 하겠소』 하면 副詞 『엇더케를』을 名詞 資格으로 用하야 此 句語에 題目語가 된 거시라. 如斯히 副詞로 形容詞¹²⁾를 代用하는 거슨 言詞에 簡短함을 取함

이니 以上 「其人の 來日」이라 ㅎ이 原詞法으로는 「其人の 恒常 來日 來日
이라 云ㅎ는 것이 無限ㅎ다.」 言ㅎ는 것이오, 「엇더케를」은 原詞法으로 「엇
더케 ㅎ 것슬 알어서는 무엇ㅎ겠소」 ㅎ는 것이다.

「來日」과 「엇더케를」은 부사인데 名詞처럼 사용하여, 각각 해당 문장의
주어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때 「來日」, 「엇더케를」은 원사법으로는 각각
「恒常 來日 來日」이라 云ㅎ는 것, 「엇더케 ㅎ 것슬」이 되는데, 간편하게
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예문에서 (a)가 원사법이다.

(7) (a) 其人の 恒常 來日 來日이라 云ㅎ는 것이 無限ㅎ다.

⇒ (b) 其人の 來日이 無限ㅎ다.

(8) (a) 엇더케 ㅎ 것슬 알어서는 무엇ㅎ겠소.

⇒ (b) 엇더케를 알어 무엇ㅎ겠소.

이들 예문에서 원사법과 실제의 발화를 비교하여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분만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a) 恒常 來日 來日이라 云ㅎ는 것

⇒ (b) 來日

(10) (a) 엇더케 ㅎ 것

⇒ (b) 엇더케

그런데 이 부분의 설명에서는 隱覺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原詞法이란
용어만 쓰고 있다. 말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a)와 같은 말을 (b)와
같이 한다는 것이며, 각 예문 (b)의 의미를 (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12) 명사라고 해야 하는데 실수인 것 같다.

것으로 보인다. 각 예문 (a)에서 무엇을 생략하여 (b)와 같은 구조가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는 한 문장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恒常 來日 來日이라 云하는 것”은 화자 또는 작자가 “來日”이란 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풀이해 놓은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隱覺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렇게 보는 것을 뒷받침하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隱覺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의 구성성분이나 문장 그 자체가 생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쓰인 용어인데, 위 예들은 문장이나 문장의 그러한 특정 구성성분에 한정되어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조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완벽한 내용의 표현이 간편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朝鮮文法』이 이들을 隱覺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사법이란 동일한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 경우도 이원론적 시각에서 보고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쓰인 SS가 있고 그것의 기저구조인 US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경우의 원사법이 기저구조라는 개념에 비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하더라도, 『朝鮮文法』에서의 이러한 문법기술의 관점을 해석하여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일종의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경우의 원사법은 그 내용이 해당 문장의 의미논리적 해석과 같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의미해석적 기저구조’라는 가설적인 개념¹³⁾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13) 여기서의 ‘의미해석적 기저구조’라는 것은 『朝鮮文法』의 이른바 기저구조 관련 기술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가설적으로 세운 것일 뿐이고, 그것이 문법 이론적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朝鮮文法』 문장론에서의 原詞法¹⁴⁾은 ①통사구조적 기저구조, ②의미해석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隱覺

앞(Ⅱ.1)에서 隱覺은 생략의 개념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생략을 隱覺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갈라볼 수 있다.

- (가) 문장의 구성성분이 은각된 경우
 - (a) 주어가 은각된 경우
 - (b) 서술어가 은각된 경우
 - (c) 목적어가 은각된 경우
- (나) 문장이 은각된 경우

14) 『朝鮮文法』에는 原詞法과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용어로 變詞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詞字가 作文에 入用될 時에 或 變改되느니 此를 曰 “變詞法.”이라 혹 『詞尾變化法』이라 呼느니 假令 名詞의 複數되는 것과 形容詞의 比較를 表하는 것과 動詞의 詞時를 分間하는 等類니라(p.6), 變詞法이라 呼은 各 詞字가 文章에 入用될 時에 各其 相關되는 詞意를 表하기 爲호야 各 品詞의 語尾가 變化되는 法式을 云호인디 (p.36).

『朝鮮文法』에서는 이를 詞尾變化法이라고도 하였지만, 이는 현대문법의 굴절(inflexion)과는 매우 다르게, 어휘론과 조어법 및 문장론적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명사의 복수’를 다루는 항에는 ‘사람-사람들’과 같은 예뿐만 아니라, ‘사람-못사람/여러사람/만혼사람’ 등이 들어 있고, 형용사의 비교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밝다-덜 밝다’와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變詞法이라는 이름으로 어휘론과 형태론 그리고 통사론의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어서, 原詞法の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문장의 구성성분이 隱覺된 경우

『朝鮮文法』에서 隱覺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 예는 다양하다. 첫째, 우선 주어가 隱覺된 예를 모으면 다음과 같다.¹⁵⁾

- (11) (a) (너) 가거라
 (b) (아모가) 온다.
 (c) (내가) 過히 늙은 사람은 願치 아니하오.
 (d) (내가) 帛를 샅더니 그것이 穢진 것이더라.

둘째, 서술어가 隱覺되어 있다고 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이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동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기술하는 부분(p.17)에서 등장하고 있다.

<인용문④>

他 品詞가 或 變體호여셔던지 或 純全히 動詞 資格을 成호는디 每樣 如何 境遇에는 其 動詞가 隱覺되느니라 假令 「압호로(軍令)」라 호면 動詞 「가라」가 隱覺되 「압호로」 副詞節이 動詞 資格을 成호느니라 且 「어서어서」 (副詞로 動詞 資格을 成호)

위 인용문에서는, 「압호로」와 같은 군령을 예로 들어, 그 뒤에 서술어 ‘가라’가 은각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압호로」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 「어서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식은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서술어를 필수적 성분이라고 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 인용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隱覺 부분은 괄호로 묶어 제시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 (12) (a) 압흐로 (가라)
 (b) 어셔어서 (가라)

셋째로, 목적어가 隱覺되어 있다고 한 예도 있다. 타동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인용한다.

<인용문⑤>

反照的으로 說明하는 動詞도 亦 他動詞이니 其 反照의 目的語가 有或 隱覺되느니라 假令 『趙書房이 自殺하엿다』 하면 『自殺』이 『反照動詞』이니 此 句語에는 目的語 『自己』가 隱覺되느니라(p.14)

‘反照的으로 설명하는 동사’ 또는 ‘反照동사’는 타동사로서의 동사의 행위가 주어에게 미치는 동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타동사라면 그 행위가 목적어에 미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주어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그 예로 ‘자살(하다)’를 들고 있다. ‘자살(하다)’는 자동사로 보아야 하는데, 『朝鮮文法』에서는 타동사로 보고 있다. ‘자살(하다)’를, 다음의 예에서처럼, ‘스스로 살해하다’의 뜻으로 보고 문장을 구성하면 목적어가 필요한데, 『朝鮮文法』에서의 기술은 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둔 것처럼 보인다.

- (13) (a) *조서방이 자기를 자살하였다.
 (b) 조서방이 자기를 스스로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趙書房이 自殺하엿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목적어 ‘自己’가 隱覺되어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隱覺된 목적어를 드러내어 原詞法의 문장으로 만들면 ‘自己’라는 목적어와 ‘自殺(하엿다)’라는 동사가 이룬

바 엄밀하위범주화 제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비정형적(ill-formed)이다. ‘자살하다’와 같은 표현은 1항술어여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불필요한데도 은각된 목적어가 있다고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이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인 것이다.

(14) *趙書房이 (自己(를))¹⁶⁾ 自殺 ㅎ었다.

목적어가 은각된 또 다른 예로 서술어가 ‘交互적으로 說明 ㅎ는 動詞’ 또는 ‘反動詞’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음이 관련 인용문이다.

<인용문⑥>

… 交互적으로 說明 ㅎ는 動詞도 亦 他動詞이니 或 曰 「反動詞」라 ㅎ는디
 假令 「 너희들이 서로 사랑 ㅎ다.」 ㅎ면 動詞 「 사랑.」이 隱覺된 目的語 「 너희들,
 의게 互相 反動이 되느니라(p.14)

‘사랑하다’는 타동사이지만, ‘교호적으로 설명하는’ 특성을 가지려면 ‘서로’와 같은 부사가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면, 둘 이상의 주어가 교호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 되고, 그러한 둘 이상의 주어가 의미상으로 목적어가 된다. 위 인용문은 이러한 의미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 예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 ㅎ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동사 ‘사랑(ㅎ다)’에는 隱覺된 목적어 ‘너희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15) 너희들이 (너희들(을))¹⁷⁾ 서로 사랑 ㅎ다.

16) ‘自己’의 문장 내 위치는 필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17) ‘너희들’의 문장 내 위치는 필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朝鮮文法』의 隱覺과 관련된 문장분석 내용을 전부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문장의 한 성분이 은각된 예로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등 주요 성분이 생략된 경우를 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朝鮮文法』에서는 목적어를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서술어에 따라 목적어가 필수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앞의 예에서 목적어가 불필요한데도 은각되어 있다고 기술하는 오류를 범한 것도 목적어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과잉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朝鮮文法』에서도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문장구조 분석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은각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했던 것도 문장구조의 분석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인식하고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單純句語¹⁸⁾의 내적 구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예와 함께 그대로 옮긴 것이다(p.82).

(16)

(一) 題目語를 擇出 事.

(二) 題目語의 擴張이나 附屬의 部分을 指摘 事.

(三) 說明動詞를 指摘 事며 動詞가 不完全 說明인 境遇에는 其 補缺詞 (他動詞에는 目的語가 卽 『補缺詞』요 自動詞에는 說明名詞나 說明形容詞가 卽 『補缺詞』나라)를 指名 事.

(四) 說明語가 他動詞인 境遇에는 其 目的語를 指摘 事.

(五) 目的語의 擴張이나 附屬을 指摘 事.

(六) 說明語에 副詞的 附屬을 指摘 事.

18) 『朝鮮文法』에서는 문장을 그 내적 구성의 특징에 따라 ‘單純句語’, ‘連結句語’, ‘複雜句語’ 등으로 三分하고 있는데, 각각 단문, 중문, 복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영근, 1983: 36).

(17)우리 先生 崔生員이 그의 아는 글을 그 房 內에서 其 兒孩들의게 只今 情誠스러히 마르쳐 준다.

(一)題目語: 최생원

(二)題目語의 擴張: 우리 선생(形容詞로 修飾을 得흔 同格名詞)

(三)說明語: 마르쳐 준다

(四)目的語: 글을

(五)目的語의 擴張

(일)그의(所有代名詞的 形容詞)

(이)아는(關係分詞의 現在 卽 形容詞 資格)

(六)說明의 副詞的 附屬

(일)그 방 內에서(형용사 「그」와 명사 「방」과 後詞 「안에서」로 合成된 處所副詞節)

(이)정성스러히(品行副詞節 名詞와 副詞로 合成됨)

(삼)지금: 時間副詞

(사)그 兒孩들의게(指名格 「그」 形容詞) 餘皆倣此

『朝鮮文法』에서의 이와 같은 분석절차를 구조주의 문법에서의 直素分析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했다(고영근, 1983:36-7). 여기서의 분석이 직소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문장을 먼저 題目部와 說明部로 분석하고 제목부 안에서 제목어와 수식어를 찾고, 또, 설명부 안에서 설명어와 수식어를 찾는 절차여야 하는데, (16)의 분석절차는 이것과는 좀 다르다. 그런데, 이상의 여섯 가지 절차는 크게 ‘제목어 분석’과 ‘설명어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목어와 그 수식어를 析出한 다음 설명어와 그 수식어를 析出한다는 것은 문장을 크게 제목부와 설명부로 나누어 분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목어와 그 수식어는 제목부가 되고 설명어와 그 수식어는 설명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직소분석에서의 기본적인 방법

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¹⁹⁾

이상과 같은 분석 방법은 隱覺된 성분을 상정하고 찾아내는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다. ‘제목어를 찾아내어라(題目語를 擇出할 事)’ 또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그 목적어를 지적하라(說明語가 他動詞인 境遇에는 其 目的語를 指摘할 事)’ 등과 같은 방법은 문장의 구성성분을 분석하는 하나의 이론적 방편이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隱覺된 성분을 상정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은각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했던 것도 문장구조의 분석에 대해 이상과 같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인식하고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 문장이 隱覺된 경우

隱覺의 예로 담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장이 생략된 경우를 들고 있기도 하다. 다음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의 인용인데, 앞(Ⅱ.1)에서 <인용문②>로 소개한 바 있다.

<인용문⑦>

此等 詞字는 己爲 發表된 思想에 對하야 言者가 可否間 說明하는 者이니 關係詞라 稱호지오 其 作用에 對하야는 動詞나 “一 句語의 全體”가 “隱覺” 된다 云호지니라. 假令 「진지 잡수섯소」 호는디 「네」라 호던지 「아니오」라 디답호면 其實은 「밥 먹었소」 호던지 「아니 먹었소」로 대담호 바를 “畧省” 하야 關係詞 「네」나 「아니오」로 簡單히 說明호이라(p.27).

19) 박종갑(1993)에서는 『朝鮮文法』의 문장 분석법과 직소분석의 차이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위 인용문은 ‘관계사’가 쓰일 때는 동사나 句語[문장] 전체가 “隱覺”될 수 있다고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관계사 ‘네’ 또는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그것은 “밥 먹었습니다.” 또는 “밥 안 먹었습니다.”와 같은 문장으로 답할 것을 ‘네’ 또는 ‘아니오’로 간단히 “생략”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응답하는 담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장(밥 먹었소/아니 먹었소)이²⁰⁾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a) 네, 밥 먹었소. ⇒ 네.

(b) 아니오, 밥 아니 먹었소. ⇒ 아니오.

이상에서 제시한 隱覺의 예는 전부, 담화상황을 통하여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담화의 한 부분인 문장이 생략된 경우에 해당된다. 생략되기 전의 상태를 原詞法이라고 한다면, 原詞法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담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장이 생략되는 것을 隱覺이라고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통사구조적 기저구조²¹⁾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문장이 생략되는 것이 은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담화상황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原詞法이란 용어는 쓰지만 隱覺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제Ⅱ장)에서 原詞法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의미해석

20) 이들 표현도, 隱覺을 고려하면, “(내가) 밥 먹었소.” “(내가) (밥) 아니 먹었소.”와 같이 될 것이므로, 하나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다.

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라는 언급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구조’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현대 문법론의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적 기저구조 모두에 상응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장의 의미해석적 기저구조에 상응하게 쓰이고 있는 예를 다시 인용한다.

(19) (a) 其人의 恒常 來日 來日이라 云호는 거시 無限호다.

⇒ (b) 其人의 來日이 無限호다.

(20) (a) 엇더케 홀 것술 알어셔는 무엇하겠쇼호겠쇼.

⇒ (b) 엇더케를 알아 무엇호겠쇼.

위 예에서 각각 (a)가 (b)의 原詞法이란 것인데, 이들 경우에는 隱覺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 (a)의 한 부분이 隱覺되어 (b)가 되었다는 식의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들을 (b)에서 (a)로 복원한다고 하면, 담화상황에 의존한다기보다, 문장의 의미내용을 통해 추론하는 방식으로, 의미 표현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완벽한 의미해석을 구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隱覺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서, 담화상황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문장이 생략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原詞法이란 용어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의미해석적 기저구조 둘 다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지만, 隱覺은 이 둘을 구분하고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관련해서만 사용하였다. 隱覺이 생략의 개념이고, 생략되기 전의 상태가 原詞法이며, 그 원사법이 통사구조적 기저구조라면, 은각은 이러한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를 연결하는 통사적 수단인 변형(transformation)에 상응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²²⁾ 『朝鮮文法』 자체 내에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자료가 많지 않아 미진한 점이 있지만, 주어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22) ‘은각을 변형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은각이 변형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은각은 다음 장(IV)에서 다루는 ‘발거’와 함께, 그 역할을 변형의 관점에서 구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하다는 뜻이다.

IV. 畧省句語

『朝鮮文法』에서 문장의 구성성분의 생략을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連結句語의 분석에 관한 곳이다. 連結句語 중에는 하나의 주어가 몇 개의 서술어와 연결되거나 몇 개의 주어가 하나의 서술어와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이를 ‘畧省흔 連結句語’(畧省句語)라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p.81).

<인용문⑧>

“... 一個 題目語나 幾個 說明語를 活用호거나 幾個 題目語가 一個 說明語로 發表되는 것은 『畧省흔 連結句語』라 호. 假令 『내 몸이 곤호고 압하다』 호는 것은 卽 『내 몸이 곤호고』와 『내 몸이 압하다』 兩 句語에 同致의 題目語를 一 題目語로 發表호므로 畧省흔 連結句語요 『金主事와 韓參書와 李參判이 온다』 호면 此는 『金主事が 온다』 『韓參書가 온다』 『李參判이 온다』 三 句語에 同致 說明 『온다』를 一 說明語로 發表호므로 畧省흔 連結句語니라 ...”(p.81).

위 설명에 나온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결구어는 중문에 상응하는 것인데, 둘 이상의 단문이 대등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21) (a) 내 몸이 곤호고 + 내 몸이 압하다.

⇒ (b) 내 몸이 곤호고 압하다.

(22) (a) 金主事が 온다 + 韓參書가 온다 + 李參判이 온다.

⇒ (b) 金主事와 韓參書와 李參判이 온다.

위 예문 각각에서 (a)가 (b)처럼 되었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약생’이란 용어와 ‘발거’란 용어를 쓰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이 그것을 보

여준다.

<인용문⑨>

“... ”畧省”은 連結句語를 分析할 時에 其 ”拔去”된 部分을 總括 說明할 事. 假令 『개고리와 악어가 물과 못헤 산다』 하면 此는 四個 單純句語 『개고리가 물에 산다』 『악어가 물에 산다』 『개고리가 못헤 산다』 『악어가 못헤 산다』를 畧省해야 連結함이니라 ...”(p.86).

畧省이란 말은 앞의 隱覺에서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술에서는, 畧省이란 말을 쓰면서도 隱覺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생략된 부분을 隱覺이란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拔去’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예문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고, 괄호 안의 부분이 은각되어 있다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拔去되었다는 표현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다.

(23) 내 몸이 곤하고 (내 몸이) 압흐다.

(24) 金主事가 (온다) + 韓參書가 (온다) + 李參判이 온다.

약생이란 용어는 쓰면서, 은각이라 하지 않고 발거란 말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은각으로 기술한 부분과 약생구어에서의 기술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文法』에서는 은각으로 처리한 경우와 발거로 처리한 경우를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문이어서 생략되기 전의 구조에 중복된 부분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중문이어서 생략되기 전의 구조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25) (너) 가거라

(26) 내 몸이 곤하고 (내 몸이) 압흐다.

(25)에서의 생략은 은각으로 처리된 예인데, 주어 ‘너’는 담화상황에 의 존하여 생략된 것이고 또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 가능한 것이다. (26)에서의 생략은 발거되었다고 한 예이다. 이 경우는 선행행문의 주어가 동일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후행문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문맥에 의존하여 생략되고 또 복원 가능한 것이 된다. 앞의 隱覺은 구체적인 담화상황에 근거를 둔 생략인데 비해 여기서의 생략은 반드시 문장의 접속에서 둘 이상의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²³⁾ 주어진 문맥을 이용하여 의미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설정한 중문 형식의 구조에서, 중복된 부분을 생략한 구조가 畧省句語인데, 이러한 경우의 생략을 拔去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문장의 구조를, 생략 전의 구조와 생략 후의 구조라는 이원적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앞(제Ⅱ장)의 경우와도 같아서, 비록 원사법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朝鮮文法』에서는 이 경우의 기저구조를 앞(Ⅱ.1)에서 제시한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는 다르게 보고 있었다. 隱覺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拔去란 표현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앞의 隱覺은 구체적인 담화상황에 근거를 둔 생략이고, 담화상황에 의 해,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면 원사법이 된다. 여기서의 생략은 반드시 문장의 접속에서 둘 이상의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를 조금 수정하여 다시 들어본다.

(27) (a) 너 가거라

23) 본고에서는 ‘담화상황’은 언어 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맥’은 선행절이나 후행절 같은 언어 내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b) (f) 가거라.

(28) (a) 내 몸이 곤하고 내 몸이 압하다.

⇒ (b) 내 몸이j 곤하고 (fj) 압하다.

여기서도, 설명의 편의상, 생략 전의 구조를 US라 하고 생략 후의 구조를 SS라고 하자.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隱覺이라고 기술된 (27)의 경우, SS에는 생략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은각된 성분이나 문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담화상황에 의존하여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받거라는 표현으로 기술된 (28)의 경우, SS에는 선행절에 생략된 구성 성분과 동일한 요소가 있다. 이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구성성분을 가진 둘 이상의 단순문이 접속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반드시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략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선행문과 같은 문맥에 의해 생략되고 또 복원되는 것이다. 『朝鮮文法』에서는 이상의 두 경우를 다르게 보아, 전자를 은각에 의한 경우로, 후자를 받거에 의한 경우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이뤄지는 인식의 과정을 추리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

- (i) 기저구조에는 주어 ‘너’가 있었는데, 생략되어 없어졌다.
- (ii) 담화상황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iii) 주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주어는 없다.
- (iv) 그러므로 ‘숨어 있다’는 뜻에서 隱覺이란 용어를 쓴다.

(30)

- (i) 기저구조에는 주어 ‘내 몸’이 있었는데, 생략되어 없어졌다.
- (ii) 선행문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iii) 후행문에는 주어가 없지만, 선행문의 주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iv) 후행문의 주어는 불필요하며 중복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iv) 그러므로 '불필요한 것을 뽑아 없앤다'는 뜻에서 拔去란 용어를 쓴다.

주어진 문맥을 이용하여 의미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설정한 중문 형식의 구조에서, 중복된 부분을 생략한 구조가 '畧省句語(畧省한 연결구어)'인데, 畧省句語를 분석할 때에도 생략[拔去]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미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열거하는 방식이다. 아래의 예에서 (b)를 (a)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 (31) (a) 개고리가 물에 산다+악어가 물에 산다+개고리가 못헤 산다+악어가 못헤 산다.
 ⇒ (b) 개고리와 악어는 물과 못헤 산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의 US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발거되기 전의 구조인 (31)(a)와 같은 구조는 어떤 개념의 구조인가? 『朝鮮文法』에서 이 경우를 앞(Ⅱ.1, Ⅲ)에서 다른 隱覺의 경우와 다르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隱覺으로 기술한 경우와 유사하다. 실제 내용으로 보면 (31)(a)는, 비록 원사법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와 유사한 성격이다. '개고리와 악어'를 구접속으로 보지 않고 문장접속으로 보고, '물과 못헤'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이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서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朝鮮文法』에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지는 핵심적 원칙은 모든 문장이 <單純題目語 + 單純說明語>의 '主述構造'²⁴⁾로 환원될 수 있다는

24) 『朝鮮文法』에서는 <單純題目語 + 單純說明語>의 '主述構造'로 이뤄진 문장을 우리말 문장의 기본구조로 보고 이를 赤身句語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박종갑(1993)을 참고할 수 있다.

것이다. 畧省句語 등과 관련된 기술은 이와 같은 보편적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朝鮮文法』에서의 문장 분석법의 핵심은 <單純題目語 + 單純說明語>라는 ‘主述構造’의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바로 앞의 예에서 (a)의 네 가지 문장은 (b)의 連結句語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主述構造’ 전부이다. 서술어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주어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리고, 하나의 주어에 둘 이상의 서술어가 연결되거나 둘 이상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지시적인 주어 또는 서술어가 생략되고 하나만 나타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한 것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편성 있는 기술을 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의 US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朝鮮文法』에서 은각으로 기술한 경우와 받거로 기술한 경우를 다르게 처리한 것은 담화상황에 의해 생략되고 복원되는 경우와 문맥에 의해 생략되고 복원되는 경우의 차이를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단순문 또는 단순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둘 이상의 단순문이 접속된 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본다.

V. 마무리

국어 문법서의 몇몇 대표작들-김규식의 『朝鮮文法』(1912),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최현배의 『우리말본』(1937) 등에는 현대 문법론에서 설정하는 문장의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 같은 기

술이 있다. 본고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김규식의 『朝鮮文法』의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朝鮮文法』에서는 ‘原詞法’, ‘隱覺’, ‘畧省句語’, ‘畧省’, ‘拔去’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이 주제에 대해 가장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장론에서의 原詞法은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경우도 있고, 문장의 의미해석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경우도 있다. 통사구조적 기저구조를 가리킬 경우에는 은각이란 용어로 기술하고 있지만, 의미해석적 기저구조를 가리킬 경우에는 隱覺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原詞法이란 용어만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은각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과 같은 구성성분이나 문장 그 자체가 생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인데, 의미해석적 기저구조를 가리킬 경우의 예들은 완벽한 내용의 표현이 간편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朝鮮文法』이 이들을 隱覺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隱覺을 생략의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김규식의 『朝鮮文法』에서 이 생략의 개념은 참 중요하다.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원사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도 이 생략의 개념이다. 은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크게 문장의 구성성분이 은각된 경우와 문장이 은각된 경우로 대별되는데, 은각되어 있다고 기술된 구성성분의 예는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등 주요 성분이다. 隱覺은, 생략되기 전의 문장구조인 原詞法에서, 담화상황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한 문장의 구성성분이나 담화의 한 부분인 문장이 생략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 은각되기 전의 구조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라 할 수 있으므로, 은각은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를 연결하는 통사적 수단인 변형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朝鮮文法』에서는 하나의 주어가 몇 개의 서술어와 연결되거나 몇 개의 주어가 하나의 서술어와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이를 畧省흔 連結句

語(略省句語)라 하였다. 주어진 문맥을 이용하여 의미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설정한 중문 형식의 구조에서, 중복된 부분을 생략한 구조가 畧省한 連結句語인데, 이러한 경우의 생략을 拔去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畧省이란 말을 쓰면서도 隱覺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拔去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각으로 기술한 부분과 畧省句語의 기술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이뤄지는 인식의 과정을 추리하여 제시하였다.

隱覺은 구체적인 담화상황에 근거를 둔 생략인데 비해, 여기서의 생략은 반드시 문장의 접속에서 둘 이상의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도 발거가 이뤄지기 전의 구조와 발거가 이뤄진 후의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朝鮮文法』에서 이 경우를 앞(Ⅱ.1, Ⅲ)에서 다른 隱覺의 경우와 다르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隱覺으로 기술한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서 동일지시적인 성분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기저구조도 통사구조적 기저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朝鮮文法』에서 이들을 다르게 기술한 것은 담화상황에 의해 생략되고 복원되는 경우와 문맥에 의해 생략되고 복원되는 경우의 차이를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단순문 또는 단순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둘 이상의 단순문이 접속된 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차이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강복수, 『국어문법사연구』, 형설출판사, 1972.
- 고영근,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서울:탑출판사, 1983.
- _____, 『한국의 언어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1.
- 권재선,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1988.
- 김규식, 『大韓文法』, 유인본(역대한국문법대계 1-14), 1909.
- _____, 『朝鮮文法』, 유인본(역대한국문법대계 1-15), 1912.
- 김명호, 『주시경 문법의 의미논리적 의존성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1996.
- 김민수, 金奎植 『大韓文法』의 연구, 『人文論集』22,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77, pp.1-31.
- _____, 『주시경연구』, 증보판, 탑출판사, 1986.
- _____, 고영근·하동호 공편, 『歷代韓國文法大系』, 탑출판사, 1977.
- 박종갑, 『김규식의 『朝鮮文法』 연구: 문장론을 중심으로』, 『용언어문논집』6,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pp.125-57.
- _____,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모형 비교연구(2), 『영남어문학』 28, 영남어문학회, 1995, pp.1-39.
- _____, 김두봉 문법의 연구: 문장론의 의미·논리적 의존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29, 국어학회, 1997, pp.199-219.
- _____, 주시경과 김두봉의 문법론 비교 연구, 『어문학』87, 한국어문학회, 2005, pp.157-73.
- 전수태, 『국어문법』 ‘짚뚱갈’의 의미연구, 『주시경학보』3, 주시경연구소, 1989, pp.103-26.
- 최경봉, 김규식 『대한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22, 우리어문학회, 2004, pp.5-28.
- 최규수, 『주시경 문법과 그 뒤의 연구들』, 도서출판 박이정, 2005.
- 최낙복, 김규식 문법의 통어론 연구, 『한글』260, 한글학회, 2003, pp.199-225.
- _____, 『주시경 문법의 형성론』, 도서출판 경진, 2013.
- 최현배, 『우리말본』, 김고고친판, 정음사, 1955.
- 한글학회 편, 『주시경선생에 대한 연구논문모음』, 한글학회, 1987.
- 한영목, 김규식 문법에서의 통사론 연구, 『어문연구』22, 어문연구회, 1991, pp.9-28.

Abstract

The Weonsabeop, Eungak, and Ryaksaeng of
『Joseonmunbeop』 Syntax

Park, Jong-Gap

The several representatives of Korean grammars—Kim Gyusik 『Joseonmunbeop』(1912), Ju Sigyeong 『Kugeomunbeop』(1910), Kim Dubong 『Joseonmalbon』(1916), Choe Hyeonbae 『Urimalbon』(1937) etc.—have the descriptions related to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sentences. As a bid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contrastive analysis for this, the paper intensively studied the related part of Kim Gyusik 『Joseonmunbeop』(1912) above all. 『Joseonmunbeop』 described so diversely this theme with the several terms such as ‘weonsabeop’, ‘eungak’, ‘ryaksaenggueo’, ‘ryaksaeng’, ‘palgeo’ etc.. Weonsabeop indicates both a sentence-structural underlying structure and semantic-logical interpretation. Eungak refers to the omission of ‘the component of a sentence’ or ‘a sentence’ restorable through a discourse situation in a sentence-structural underlying structure. Eungak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syntactic equipment connecting an underlying structure with a surface structure. Ryaksaenggueo is the structure which omits an overlapped part in the structure of a compound sentence form established by means of semantic-logical inference employing a given context. This kind of omission is described as the term of palgeo in 『Joseonmunbeop』.

Key Word : Kim Gyusik, underlying structure, transformation, co-text, context, weonsabeop, eungak, ryaksaenggueo, palgeo.

박종갑

소속 :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 053-810-2115 / 010-9812-9536

전자우편 : ckpak@ynu.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